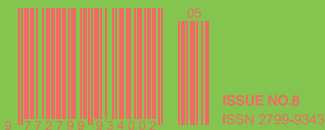


✈ 새마을운동중앙회



DONATION



Prologue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콩을 먹는다고 배가 부르진 않겠지만 나누는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 마음은 좌절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기부’,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갑니다.

재난 피해 복구 물품 나누기



Contents

2023 05+06 제8호



06	Focus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10	펼침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부
12	어울림 재미와 가치를 모두 잡은 요즘 시대 기부
16	누림 전망 좋은 그곳, 단양 - 충북 단양 여행
20	Interview 간절함이 담긴 글자, 희망의 가교가 되다 - '칠곡할매글꼴' 권안자, 김영분, 이원순, 이종희, 추유을 할머니
24	새마을 아카이브 - 민주적 합의와 운영 관련 기록물 편 - 살아있는 성공신화 '정문자 지도자'



28	새마을 사람들 1 따뜻한 마음이 일궈낸 아름다운 성과 「2022 전국 시도·시군구 부녀회 종합평가」 - 시군구 최우수 제주 제주시부녀회
32	새마을 사람들 2 집 앞 작은 꽃, 마을의 변화를 이끌다 「2022 우수 마을공동체」 - 우수마을 경기 부천시 '모두랑 먹적골 마을공동체'
36	대학새마을동아리 청춘의 푸르름으로 새마을을 밝히다 - 신한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
40	지구촌새마을운동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연결하는 새마을협력관 - 2023 새마을협력관 교육
42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



46	중앙회 소식
47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3년 5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곽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4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0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명시된 국가기념일로,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어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의 장으로 매년 개최해 왔다.

글: 홍보팀





1



2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23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탄소중립 실천·연대 강화,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새마을운동 조직의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라는 비전을 널리 알리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발전시키며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협력 등 새마을운동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객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페데리코 알베리토 쿠에요 카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를 비롯한 40개국 주요 외국대사, 전국 새마을회장단,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와 학생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좌중록 부산광역시 북구협의회장 등 10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새마을 기념장 및 우수지역 지부·지회 등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수여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새기고,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며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객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이 되도록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23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탄소중립 실천·연대 강화,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새마을운동 조직의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청년(MZ)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국 60개 대학에 새마을동아리를 구성하고,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180만 새마을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취약계층 돌봄과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산불, 침수 등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는 7월 4일(화)부터 7월 7일(금)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마을운동의 국제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결집할 예정이다. 🌐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aemul Umdong Global League): 2016년 창립, 총 46개 회원국의 새마을운동 조직

1 객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시도 최우수상을 받은 대전광역시새마을회

2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퍼포먼스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부

모금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와의 관계 형성이다. 단단하게 쌓인 관계는 기부자와 기관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충성도를 향상시킨다. 또 잠재적 기부자에게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든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CMS 1% 후원 활동은 이미 기부자와 새마을운동중앙회와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충성도를 갖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금보다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과 다른 기부자들의 참여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선 다양한 방법의 기부가 진행되어야 한다.

글. 홍보팀



새마을운동중앙회 CMS 1% 후원 활동 현황

(2022년 12월 기준)




2,282,641 천원


63,530 명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기부금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부금 총액은 15조 5,524억 원에 달한다.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2005년부터 비교하면 15년간 기부금 규모는 2.3배 성장했다. 납세자의 28.4%가 기부를 하고 있으며, 사회조사 기준으로는 21.6%가 참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부자들은 기부를 통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연대는 곧 '나를 위한 연대'일 수 있다는 공감대와 '사회 속의 나를 생각'하는 자아실현의 창구로서도 기부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2023 기부트렌드, 사랑의 열매)

새마을의 사업비는 많은 부분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다. 보조금은 사업비 확보에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창의적, 자율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보조금 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비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에서는 이미 '1% 후원금 모금' 및 재난재해 등에서 다양한 방법의 모금을 진행해왔다. 일반인들의 참여보다 회원들로 이루어지는 사업운영이 대부분인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후원자 확보는 다양한 경로의 지지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통계결과에서 보여지듯 사회적 기부온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부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모금방법과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기부의 투명성은 보장될 것이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부문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후원자 확보는 새로운 회원확보와도 일맥상통한다. 기부문화 트렌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부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

재미와 가치 모두 잡은 요즘 시대 기부

현재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으로, 그리고 그 이후 국내외 경기 악화로 또 다른 위기에 맞닥뜨렸다. 자신을 돌보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위한 기부는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까? 놀라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오히려 더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처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힘, 요즘 시대 기부에 대해 전한다.

참고 <2023 기부 트렌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3



어려울수록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2021년 기부와 관련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부하지 않는 시민들 45.8%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전문조사업체 엠브레인의 '2022 기부경험 및 기부 문화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한 사람이 69.7%에 달한다. 치솟는 물가에 경기마저 얼음장이 된 요즘, 시민들의 기부 참여는 당연히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무지출 챌린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당연히 기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다. 지난 IMF 당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집안에 잠자고 있던 금을 모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연대의 힘으로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며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러한 위기 속 연대 의식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 기부금 총액(인플레이션 반영)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20년의 경제위기 시기에 기부금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기부금은 2008년 300억 원 정도(전년 대비 -0.4%), 2020년에는

600억 원 정도(전년 대비 -0.7%)만 감소했다. '경제가 어려워 워서 모금이 잘 안된다'라는 모금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모금 성과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만 잘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 기부 참여로 이어져 모금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기부액이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기부 참여 경험이 있는 19~59세의 76.9%가 기부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44.7%)'을 꼽았다.

일상을 이롭게, 갓생시대의 기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일상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자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산다는 율로를 표방하던 삶에서 이왕이면 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갓생 인생을 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시로 밀려오는 무기력함과 우울을 삶에서 찾아 작은 의미들로 채워나가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갓생 트렌드는 기부와 맞물려 챌린지와 모금 캠페인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아이스 버킷 챌린지'



1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 1,700여 명은 지난해 태풍 '한남도'가 쓸고 간 자리를 찾아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피해 지역의 수해복구, 중식지원, 성품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기부가 공동체와 연대하여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참여가 사회의 변화를
끌어낸다고 생각하면
기부효능감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금기관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로 모인다.

처럼 챌린지 형태의 기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의 챌린지는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모금 기관이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이 주도성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갯생 트렌드든 기부든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키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긍정의 방향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인트에 주목하며 갯생 트렌드와 시너지를 발휘한 기부가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며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기부에도 취향과 재미가 있다

기부에 참여해 본 이들은 어렵지 않게 다양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가게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기부를 망설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부자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카카오키의 '같이 가치'가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기부 콘텐츠를 보고 응원(♡) 버튼을 클릭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내 이름으로



2
대구 서구새마을회(회장 김동근)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를 접한 2020년부터 꾸준히 적십자혈액원을 방문해 단체헌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경남 합천군지회(회장 박진식)는 지난 3월 합천 산불 진화에 애쓰시는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중식과 물을 전달했다.



기부를 대신 해준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데다 단 몇 초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 누구나 흥미를 느낄 법 하다. 한 번 참여한 이들은 이 좋은 일을 주변에 공유하며 파급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심이 없던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기부 방식이 다채롭게 전개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에 대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년층에게는 참여형 기부 방식이 인기가 높다. 내 일상과 기부를 가까이에서 연결할 방법으로, 의미가 담긴 물품을 구매하거나, 체험이나 운동을 통한 기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챌린지와 연결되어 더 가치 있는 일상을 만들어 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부가 취향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된 K팝 행동주의가 대표적 사례다. K팝이라는 하나의 취향으로 모인 그룹은 정치·사회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BTS의 팬덤인 '아미(ARMY)'의 이야기가 자주 소개된다. 지난 2020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운동에서 BTS와 소속사가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기부하자 그들의 팬인 아미가 단 27시간 만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금하며 이슈가 됐다. 국내에서는 팬덤 기부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 덕분에 팬심동체, 행덕챌린지, 착한 덕질, 팬덤 나눔 리더스클럽 등 팬덤 기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났을 정도다. 취향에 따라 모인 것은 맞지만 팬덤 기부처럼 기부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과 달리 동일한 취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양상도 늘고 있다. 이 또한 반가운 일이다. 취향을 중심으로 뭉치는 기부자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확대될수록 기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다채로운 방식이 늘어날 테니 말이다.

기부를 행한 후 드는 마음, 기부효능감

기부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대부분 기쁘다, 뿌듯하다, 자랑스럽다는 것과 같은 나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임무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이를 기부에 빗대어 보면 기부효능감이란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부에 대한 능력이라 볼 수 있다. 즉, 내가 한 기부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다.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자 한다. 기부자들이 나의 기부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이뤄냈으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부가 공동체와 연대하여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참여가 사회의 변화를 끌어낸다고 생각하면 기부효능감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금기관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

전망 좋은 그곳, 단양

충북 단양 여행

깊어지는 봄의 끝자락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단양이 제격이다.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흠치는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날고 남한강에서 도담삼봉을 앞에 두고 풍류를 즐기며, 푸른 나무를 곁에 두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노라면 자연과 한 뼘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다.

글. 편집실

섬세하고 아름다운 경치

예부터 많은 이들은 단양의 아름다움을 글로, 그림으로 남겼다. 특히 조선 개국 공신인 삼봉 정도전, 퇴계 이황과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등 내로라하는 이들이 단양을 사랑했다. 이들이 사랑한 단양팔경은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구담봉, 옥순봉,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뽐낸다지만, 단양팔경의 백미는 단연 도담삼봉이다. 잔잔한 남한강 위로 솟아난 세 개의 봉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이나 붉은 해질녘에도, 소복이 눈 내린 겨울이나 푸른빛이 짙어지는 여름까지도,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물 위에 떠 있는 도담삼봉을 바라보며 단양을 만끽했다면 이번엔 하늘길로 향해보자. 다섯 개의 활공장에는 패러글라이딩하기에 딱 좋은 바람이 불어와 가벼이 몸을 띄운다. 꼭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하늘과 맞닿은 활공장 곳곳에서는 발아래로 단양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땅에서는 스틸 넘치는 단양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인기인 단양 잔도는 만학천봉 절벽 아래 조성된 나무 데크 산책로로, 열차가 지나는 상진철교 아래부터 절벽이 마무리되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초입까지 연결된다. 바람 끝의 수려한 풍경을 만끽하다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올라 서면 유리 데크 아래로 까마득한 남한강이 펼쳐져 아찔함이 배가 된다. ☺



이곳만은 꼭! 단양군새마을회가 추천하는 단양 여행



도담삼봉

단양팔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은 남한강 상류 한가운데에 기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가운데 가장 높고 큰 섬인 장군봉을 중심으로 북쪽 봉우리를 처봉, 남쪽 봉우리를 첩봉이라 부른다. 예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해 조선시대의 많은 화가와 문인이 시와 그림으로 도담삼봉을 남겼다.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
- 043-422-3037



만천하스카이워크

수양개 선사유적지로 알려진 적성면 애곡리 일대에 위치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원형으로 만들어진 근처 소백산과 금수산, 월악산 등 명산을 사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 아래에는 980m 구간을 활강하는 집와이어를 타고 스피드와 스릴을 만끽하며 단양의 비경을 즐길 수 있다.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94번지
- 043-421-0014



보발재

해발 540m 위에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 이 마치 뱀이 지나간 듯한 모습을 한 보발재. 3km에 달하는 도로 주변의 빼곡한 나무를 곁에 두고 일곱 번의 굽이진 길을 달리다 보면 점점 푸른 여름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하다. 전망대에서는 소백산의 능선을 감상할 수 있다.

-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옥순봉

충주호에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 옥순봉이라는 이름은 퇴계 이황이 지었는데, 산의 모양이 죽순과 같으며 희고 푸른 바위들이 마치 대나무 숲 모양으로 천여 척이나 힘차게 치솟아 있는 듯한 봉우리를 보고 지었다고 한다.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3827
- 043-422-1146



온달산성

과거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했던 곳으로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 장군의 무용담과 함께 평강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성 아래에는 온달 동굴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이 진행된 단양 오픈 세트장을 둘러볼 수 있다.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 043-423-8820



양방산 활공장

하늘 위에서 단양을 품고 싶다면 활공장을 찾아보자. 단양에는 총 5개의 활공장이 있는데, 그중 양방산 활공장은 굽이굽이 돌아치는 남한강이 단양 시내를 품고 흐르는 풍경을 발 아래 두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활공장이다.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50
- 043-422-1146

충북 단양군새마을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단양군새마을회는 1984년 4월 새마을 지회를 개소하여 1997년 3월 시단법인 단양군새마을회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대 오수원 회장을 중심으로 협의회, 부녀회, 직장, 문고 4개의 단체가 있고 8개 읍·면에 협의회와 부녀회, 리 지도자, 리 부녀회로 구성된 4,395명의 지도자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단양군새마을회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버리는 물건을 재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3R운동'을 목표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려진 농약병과 폐비닐 등을 수거하고, 헌 옷 수집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단양의 주요 관광지와 마을 도로 주변, 등산로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생업도 뒤로 미룬 채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할 전할 때면 늘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지난해 농번기에 마늘 수확과 운반 작업 봉사와 함께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까지 연계하여 단양황토마늘 20톤을 판매해 농가에 보탬이 됐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회와 협의회·부녀회·문고·직장공정협의회 4개 단체와 함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실천운동,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장 김치, 쌀, 연탄, 도시락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장학금 지원, 어르신 경로잔치 등 상황에 맞는 나눔 활동을 할 때,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 독서경진대회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때, 재활용품 수집, 전기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에 힘을 보탬 때 등의 순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양군새마을회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매년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새마을지도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새마을회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베트남 꺼우저이(Cầu Giấy) 장애인어린이집을 방문해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용품과 완구 등을 전달했으며, 라오스 마을안길 포장공사, 미안마 화장실 건축 등 국제화 사업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2023년 단양군새마을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상생과 통합, 사회적 자본 확충, 연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1읍면 1마을공동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읍면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휴경기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기정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양군새마을회가 전개하는 공동체 회복과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단양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왼쪽부터) 오창수 직장공정협의회장, 심종진 부녀회장, 오수원 단양군새마을회장, 박금옥 문고회장, 이희준 협의회장



이원순



김영분



이종희

간절함이 담긴 글자, 희망의 가교가 되다

‘칠곡할매글꼴’ 권안자, 김영분, 이원순, 이종희, 추유을 할머니



권안자



추유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은 늘 배움의 연속이다.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 중 한 분인 이종희 할머니는 “배움은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던 환경에 살던 그들이, 마침내 평생의 간절함을 담아 한글을 배웠다. 그간 꾀꾀 눌러쓴 글씨는 ‘칠곡할매글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글씨가 세상을 환하게 하는 희망의 가교가 되고 있다.

글. 왕보영 사진. 칠곡군청

제때 못 배운 평생의 한을 풀다

지난 1월 25일 경북도청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 평소 경북도청 직원들이 독서를 하는 미래창고에 과거 시간 여행을 온 듯한 1970년대 교실 풍경이 펼쳐진 것. 이 특별한 수업의 주인공은 ‘칠곡할매글꼴’을 만든 할머니들이다. 복고 느낌이 물씬 풍기는 교복을 입고 나무로 된 책걸상에 앉자 생전 처음 보는 교실 풍경이 신기한지 재질재질 수다 떠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녀들이다. 오늘 수업의 선생님을 맡은 이는 수학 교사 출신이자 경북도민행복대학 총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김영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차게 “차렷, 선생님께 경례!”를 외쳤다.

김영분 할머니는 곱게 입은 교복과 난생처음 해보는 반장 역할이 낯설면서도 좋은지 교복을 몇 번이고 매만지며 “갑자기 내 보고 반장하러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틀릴까 봐 집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몰라요”라고 말했다.

오늘 수업은 경상북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그간 배운 한글실력을 체크하는 받아쓰기도 진행됐다. 참석하신 할머니들의 나이는 모두 달라도, 교복과 교실, 수업 등 모든 게 생애 첫 경험인 것은 같았다. 그리고 수업 내내 얼굴에 비치는 환한 미소와 수업에 대한 열정까지도.

수업이 끝날 즈음 할머니들은 경북도민행복대학 이름으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학사모도 쓰고 기념사진도 남겼다. ‘위 학생은 행복대학 수업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힌 상장을 받은 할머니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로, 한국전쟁으로, 여의찮은 생활고로... 저마다의 사연과 사정은 달랐지만, 제때 배우지 못한 평생의 한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글이라 키는 게 그렇게 무정하고 어떨 때는 속이 터져서 내가... 이름도 쓸 줄 모르던 나한테 한글을 알려줘서 참말로 고맙지요. 이렇게 졸업장도 주고 상장도 받고 예쁜 교복도 입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예”라고 말하며 이원순 할머니가 그간의 설움을 기쁨의 웃음으로 털어냈다. 옆에서 선생님의 대답에 가장 씩씩하게 대답했던 반장 김영분 할머니는 “이런 날이 어딴노”라며 졸업장을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배움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다

“동생들이 넷이나 되이께, 동생들을 공부시키야 된다면 엄마 아버지가 그랬습니더. 너는 아직 안 해도 되니까 동생들을 시켜야 한다고...”라고 말한 김영분 할머니도, “아들 공부시키고 또 들에 밭매러 댕기고 그런 거 하나라 공부야 뭐라요”라고 말한 이원순 할머니도, “열 살이 되던 해에 부모를 잃었어요. 남의 집 돌아다니며 식모살이하느라 공부는 무신 살기 바빠 내 이름 쓸 줄도 몰랐습니더”라고 말한 권안자 할머니 역시 배움을 잠깐 미룬다 생각했지만, 기록지 않은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이 수십 년이나 흘러버렸다.

지난 1월, 성인문해교육을 받은 ‘칠곡할매글꼴’ 주인공인 할머니들이 마지막 수업을 받고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글자 써는 아니까 사느기 더 재밌다

“배우는 건 좋은 일이라카문.
모르는 것은 서로서로
가르쳐 주면 되고.
젊을 때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들처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칠곡군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을 깨친다는 것은 교육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권유로 권안자, 김영분, 이원순, 이종희, 추유을 할머니는 지난 2020년부터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미있더라고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도 많이 하고, 나더러 글씨를 잘 쓴다고 카데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요~ 나는 제일 못 쓰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맞지 싶는데 말했지요.” 추유을 할머니가 지난 수업 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우리 즐겁게 공부시킨다고 머리에 삭삭 들어가게 쉽게

해줬어요. 아이고, 뭐 잘하도 못하고 제일 끈드바리에 드갑니다. 끈드바리에 드가도 마음은 행복했제”라며 이종희 할머니가 거들었다.

실력이 늘어갈 때마다 세상이 선명해졌다. “농협 같은데 가면 돈 찾을 때, 자기 이름 쓰라 카잡아요 옛날에는 쓸라카문 팔이 떨리 싸서 못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떨고 그런 건 없어요.” ‘추유을’ 이름 석 자를 쓴다는 일이 할머니에겐 큰 기쁨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됐다.

일흔이 넘어서야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들의 뽀뽀뽀한 글씨 한 자 한 자엔 마치 희로애락을 담은 우리네 삶이 담긴 듯하다. 이런 할머니들의 글씨를 보고 가족들은 글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당탕 칠곡 할매들의 도전, 새마을운동을 닦다

할머니들이 배움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누리게 된 긍정의 결실을 더 많은 이들과 경계 없이 나눌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고민은 폰트 제작에 이르렀다. 폰트화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은 10년 이상 성인문해교육을 받은 분 중 성인문해 강사들의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 이뤄졌다. 한글 공부에 더 절절했던 분, 수업에 더 열의를 가졌던 분, 한글 공부와 남다른 인연이 있었던 분, 서체가 남달랐던 분 등 심사숙고 끝에 권안자, 김영분, 이원순, 이종희, 추유을 할머니 다섯 분을 선정한 것이다.

인생팔십줄 사느기 와이리 재민노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할머니들

5인 5색 개성만점 칠곡할매글꼴

권안자체

칠곡 할매들을 안이자뿌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분체

그자 영절을 맞이하여 온 식구가 모이가 보내야 되는데

이종희체

대통령님은 나랏일 챙긴다고 고향도 못가고 억수로 섭섭 하시지예?

“폰트가 뭔지 몰라~” “비누 뭐 이런 거 만드는 기라예?” 가나다 라초차 모던 할머니들이 폰트라는 이름도, 개념도 알 리가 없었다. 얽힌 데 땀진 격으로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었다. 하는 수 없이 성인문해 강사들이 할머니 한분 한분을 집으로 찾아가 글씨 연습을 도왔다. 처음엔 A4용지 100장과 펜 3자루씩 드렸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가면 100장을 다 쓰고도 모자라 다른 종이에 연습한 것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4개월간 각자 연습한 종이가 2,000장이 넘었고 펜 7개의 잉크가 다 닳았다. 꾀꾀 눌러 쓴 할머니들의 글씨에 칠곡군청과 비영리단체인 ‘아울러사 화적협동조합’, 디자인 글꼴 제작업체 ‘다운폰트’가 힘을 합쳤다. “저녁에 잠이 안 오고 허른 내 혼자 11시까지도 할 때 있고, 12시까지도 할 때 있고. 책 자꾸 들다 보고 이라문 두 자 배울 거 한 자 더 늘고...” 김영분 할머니의 연습은 허를 내두를 정도였다. “한글은 보고 쓰라니까 그대로 쓰겠는데, 영어도 쓰라카데. 듣도 보도 못한 글을 쓸라카니 꼬부랑 걸 그걸 몬쓰겠습디더.”, “아이고. 영어는 못해요. 꼬불꼬불하게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영어 하니 재미는 있는데 아래 돌아가미 쓸라카이 못 쓰 겠드라카이. 그제 힘들었어요.” 한글 폰트에 이어 영어 폰트까지 만들려다 보니, 꼬불꼬불 그림같이 생긴 알파벳이 할머니들을 꽤나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지난 세월 배움에 대한 간절함, 포기하지 않았던 긴 연습

이원순체

할매들은 애들이 오지만 죽은 영감 보고자파 마음이 적적합니데이

추유을체

새해 복도 더 많이 받고 건강도 잘 챙기이소

시간,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함께라는 믿음이 더해져 마침내 ‘칠곡 할매 글꼴’이 완성됐다. 가족들의 반응을 묻자, 추유을 할머니가 “우리 딸도 손녀도 대단하다 카문스 연락했어”라고 말했다. “깜짝 놀라지. 엄마도 이렇게 공부해가 편지를 쓴다면서. 딸이 울었어”라며 김영분 할머니도 말을 더했다. 칠곡할매글꼴은 한컴오피스, MS오피스에도 탑재됐으며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이 글꼴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특히 올해 초 대통령 연하장 글꼴로 선정되어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했다. 상인들은 이 정겨운 글꼴을 이용해 홍보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 주문한 음식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작성하기도 한다. 생전에 상상도 못해봤을 법한 일들이 눈앞에서 계속 펼쳐진다. “위에 어른들은 세상을 떠서이 이 세월도 못타고났지마는 우리는 요 세월을 타고나 배울수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이원순 할머니. 많은 사람들이 그간 못 배운 세월과 서러움을 위로하지만, 할머니들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배울 수 있음에 좋다고 말한다. 이종희 할머니는 “배우는 건 좋은 일이라카문. 모르는 것은 서로서로 가르쳐 주면 되고. 젊을 때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을곳곳 마다 ‘꽃피는 금남리’, ‘농가 먹어야지’, ‘그만하마 잘 했다’ 등 뽀뽀뽀한 정겨운 글씨가 새겨졌다. 할머니들이 배움으로 피워낸 행복이 오늘도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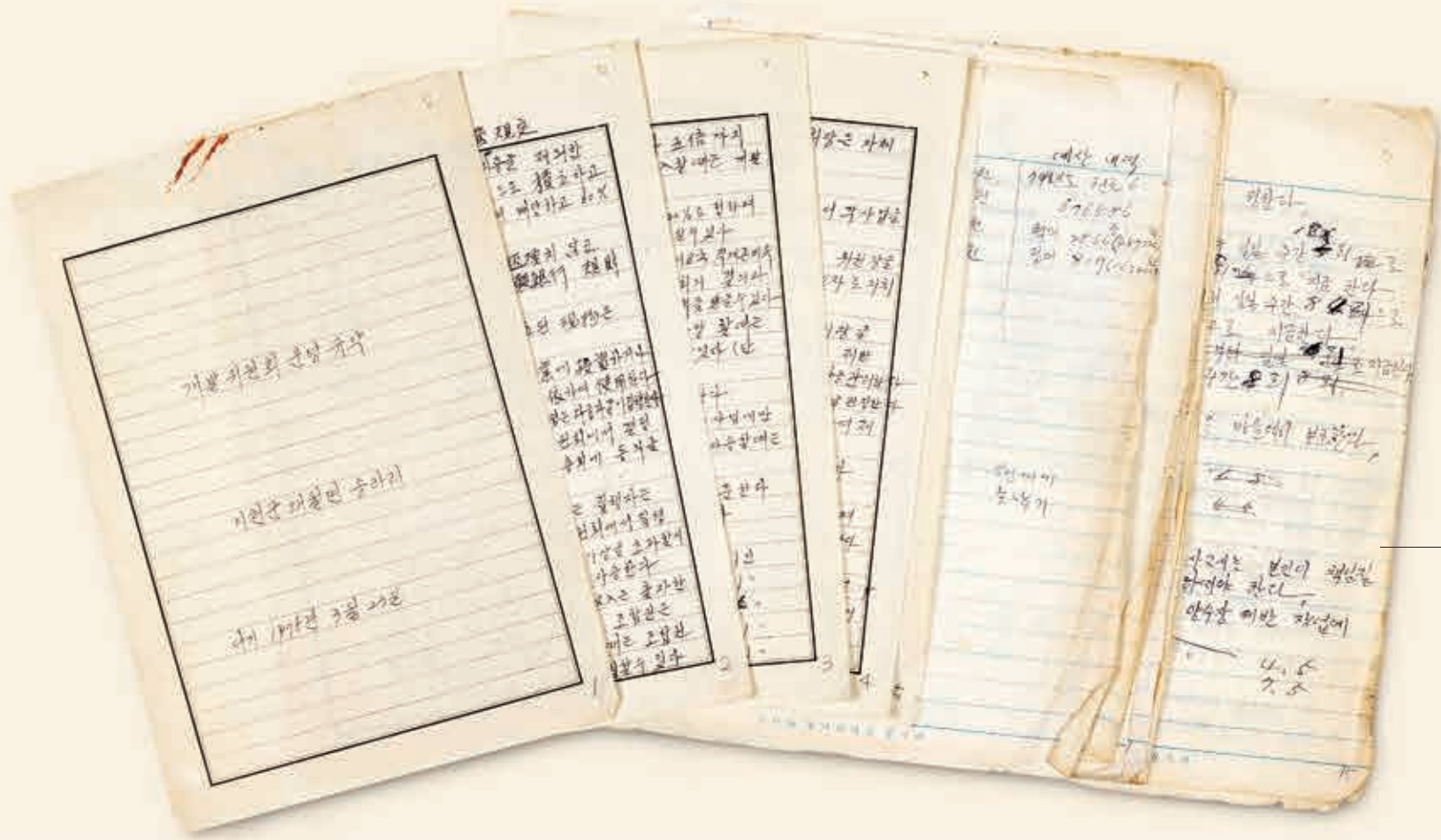
깨어나는 주민의식

마을단위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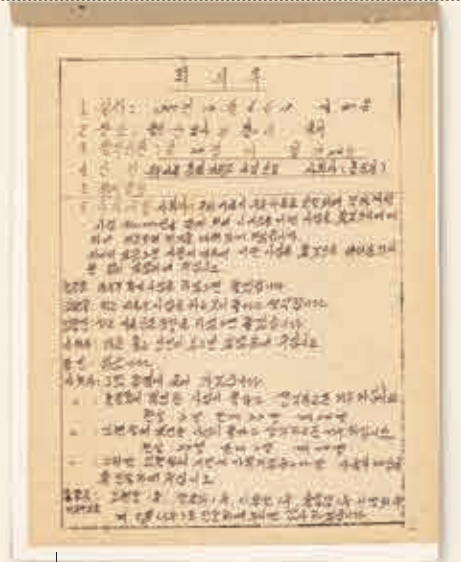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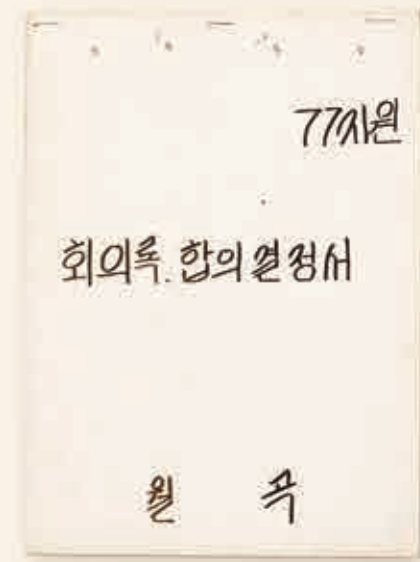
민주적 합의와 운영 관련 기록물 편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문서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으로 제작됐다. 특히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써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3년 '새마을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가치와 의의를 전하고자 한다.



마을개발위원회 운영규약
1975년 | 21×27.5 | 경기 이천군 대월면 송라리 | 유네스코기록
이천군 대월면 송라리 마을개발위원회가 만든 총 14개조의 운영규약으로, 1970년대 농촌 마을의 공유재산 운영과 수익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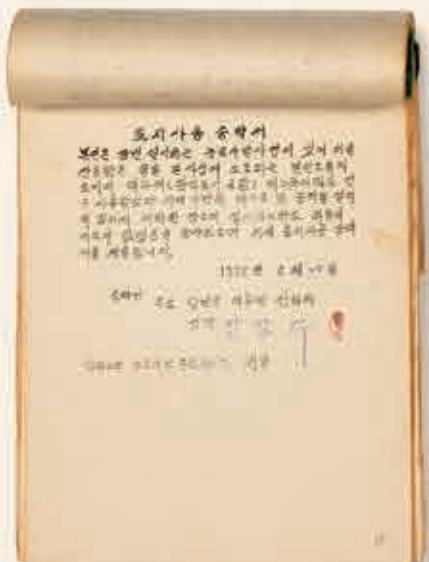


특별지원금사업 회의록 및 합의결정서
1977년 | 20×27 | 경기 용인군 남사면 창2리 월곡마을 | 국가지정·유네스코기록
우수마을 특별지원금사업에 관한 마을총회의 회의록과 합의결정서로, 비육우 사업 투자에 대한 주민 24명의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마을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총회가 있었다. 공동체 성격이 강한 농촌에서는 마을 재산 관리, 질서와 안녕에 관한 기원 등을 의논하기 위해 매년 1~2회 열렸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모든 주민들이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구속력을 지녔는데, 1970년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면서 마을총회는 새마을사업에 관해 주민이 뜻을 모으고 결의하는 기구로 활용됐다.

특히 일을 추진할 때마다 협의를 거쳐 사업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농촌 주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거나 협의하는 것은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과 개발위원 등이 주축이 된 마을개발위원회가 맡았다. 이들은 마을규약을 만들어 마을 구성원들이 서로 간 지켜야 할 내용을 협의하며 미리 갈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각종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규약은 주민 협동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새마을사업 용지 토지사용 승낙서
1972년 | 19.7×27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2리 | 국가지정·유네스코기록
토지 소유주 93명이 농로개발사업에 요구되는 본인 소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승낙서 묶음이다.

산골 마을 새마을지도자에서 지역 여성계 대표 인물로

새마을운동, 살아있는 성공신화!! 정문자 지도자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통해 그들의 리더십과 당시 마을 단위별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정문자 지도자
인터뷰 영상



“내 몸이 활동할 수 있는 한 제가 속한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고 그 봉사의 밑바탕엔 언제나 새마을정신이 있습니다.” 전북지역 여성 최초로 동장(洞長)을 지낸 정문자 지도자. 그녀는 1940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나고 자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임실군 성수면에서 면서기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시집와 산골에서 8년간 남의 땅 2만 평을 개간하고 가축을 키우다 실패를 거듭했다. 당시 정 지도자가 깨달은 교훈은 ‘농업은 이상과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1968년 오류리로 내려온 후 밤나무 2천 그루를 심어 남의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기르다 진 빛을 다 갚았다. 그녀는 오류리 새마을 여성지도자로 활동하며 ▲가난 없는 마을 ▲배우고 가르치는 마을 ▲가족계획과 생활개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을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을 등 오류리 이상촌 건설 목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당시 진행되던 새마을

운동의 방향을 근간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마을과 달리 동네 특성에 맞는 목표(目標)를 정하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오류리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어린이 공부방 설치와 학교에 못 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과정 설치 등이 그 예다. 이런 활동으로 그녀는 1974년에 대통령 훈장을 받았고 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을 수없이 받았다. 정 지도자는 1977년 친정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전주로 이사를 해야 했지만, 1979년까지 2년간 임실지회장을 더 맡아서 활동했다. 이후 전라북도새마을회 사무국이 생기면서 도지부 초대 부녀국장을 맡아 1993년 초까지 사무국 일을 하게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여자 동장을 최소한 1명 이상 발령을 내리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다. 자격

으로는 행정공무원 6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지방의회 의원 경력 4년 이상인 자, 새마을 군지회 회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었다. 전주시는 의회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여성이 없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출신 중에서 후보를 물색하게 됐고 정 지도자가 물망에 올랐다. 1993년 7월1일 전북지역 최초의 여성 동장은 그렇게 탄생했다. 동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녀는 ‘새마을운동식’으로 일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새마을운동식이란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 태도를 갖는 것이다. 전주시의 5대 시책(市策)을 새긴 명함을 들고 동민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다니니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듣게 됐고, 거리 청소

에 신경을 쓰다 보니 “여자 동장이 오니 골목길이 깨끗해졌다”는 소릴 듣게 됐다. 그녀의 초임지인 풍남동 사무소가 전주시에서 알아주는 ‘친절한 동사무소’가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 동장이 이끄는 풍남동사무소가 호평을 받아, 전주시는 아예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 정 지도자를 내정했다. 1995년 6월 사환에서 동장까지 여성으로만 구성된 시범 동사무소가 중노2동에 설치됐다. 그녀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면 여성 공무원의 미래는 암울해진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을 했다. 그 결과 42개 동 중 평가가 늘 꼴찌였던 중노2동이 3위로 뛰어오르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정 지도자는 동장에서 퇴임 후 다시 새마을운동을 하게 된다. 1998년 새마을부녀회 후원회원들의 모임인 백일홍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새마을중앙연수원 외국인 교육 사례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

따뜻한 마음이 일궈낸 아름다운 성과

「2022 전국 시도·시군구 부녀회 종합평가」

시군구 최우수 제주 제주시부녀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제주시부녀회를 찾았다. 제주시부녀회가 운영하는 알뜰매장에는 아침인 게 무색하게도 새벽부터 나와 메주를 빚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에게 된장을 담그는 일은, 일 년을 지내는 의례 중 하나. 된장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을 훌쩍 넘어섰고, 부녀회의 된장 맛은 이미 제주시에 소문이 났을 정도로 일품이다. 분주하게 메주를 빚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일품 된장을 만드는 비법은 몇십 년을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는 제주시부녀회의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제주시 23개 읍면동 부녀회장 모습



알차고 보람찬 새마을 활동

홍경애 회장에게 제주시부녀회는 남다르다. 그녀가 새마을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어섰고, 회장직만 해도 두 번의 연임까지 더해져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만큼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마음은 이제는 뿌듯함을 넘어 자부심이 된 지도 오래다. 그렇기에 이처럼 제주시부녀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 이만한 버팀목도 없을 듯하다.

제주시부녀회에서 진행되는 활동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통문화 알리기, 환경정화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르신께 수의 전달하기 등 따뜻한 나눔 활동은 세대를 넘어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모든 행사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통해 기획하고

1
된장을 담그고 있는 제주시부녀회

2
10년 넘게 이어온 제주시부녀회의 된장은 맛있기로 소문났다.

3
된장을 만들기 위해 띄운 메주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주제로 소통하고, 이달의 활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주시부녀회의 활동이 활발한 건 회원들의 적극적인 마음 덕분이에요. 제주시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멘토·멘티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 알리기, 명절 차례상 차리기, 인사 예절 및 한복 입는 방법 배우기 등 우리 문화에 대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제주시와 협업해 ‘2040 플라스틱 제로섬 만들기’에도 동참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올해 4월 서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가 플라스틱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이후 새마을부녀회도 이에 동참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페페트병을 16만 590kg을 수집해 자원 재생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페페트병을 원자재 공장에 판매하는 활동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이웃을 위해 특별하게 사용한다.

이웃을 위한 나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이웃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부녀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한 사업 중 하나가 ‘사랑의 수의 전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됐으며, 한 해도 빠짐없이 30여 년간 이어오고 있는 활동이다. 수의는 알음알음 모은 헌 옷 모으기 사업과 새마을알뜰매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금으로 구매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700벌의 수의가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소외계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환경정비 사업도 그 일환 중 하나다. 관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전문가와 함께 노후된 벽지 및 장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다.

“도배 교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새마을 활동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뿌듯한 마음입니다. 특히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는 해요. 그럴 때마다 힘든 일이 모두 씻겨질 만큼 보람차요. 앞으로도 관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일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된장 담그기 활동은 다른 지역 새마을회에서는 볼 수 없는 사업이다. 대체로 많은 지역 새마을회에서는 김치 담그기를 통해 이웃에게 나눔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홍경애 회장은 다른 지역

새마을과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색을 통해 실현한 일이 재래 된장 담그기다. 올해로 벌써 10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 과정을 제주시부녀회에서 진행하는데, 모두 힘든 내색 없이 즐겁게 된장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전 과정에 제주시부녀회의 손길이 들어가요. 콩을 세척하는 일에서부터 숙성하고, 메주를 빚고 된장으로 만들기까지. 어느 과정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 이미 제주시에 우리 된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니 매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년 양도 늘리고 있고, 그 덕분에 가마솥도 세 개를 설치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뜨거운 피약벌에서 메주를 손질하는 데도 회원들은 힘든 기색 하나 없다. 올해 된장도 분명 감탄할 맛이 나올 것이라 짐작됐다.

세대를 넘어 새마을정신이 이어지길

오랜 시간 동안, 제주시 각지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덕분인지

최근 제주시부녀회에는 기쁜 일도 있었다. 2022년 ‘전국시도·시군구부녀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새마을부녀회 가운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무엇보다 공동체운동, 지구촌새마을운동 등 4대 중점과제와 조직관리, 재정분야, 언론홍보 실적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렇기에 이번 최우수상의 영예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에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

내년 총회를 끝으로 회장직 임기가 종료된다는 홍경애 회장. 그녀는 마지막까지 새마을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 활동을 하며 제주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의 융화’를 통해 새마을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새마을에 대한 고민, 이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시부녀회. 이들의 활동 내용만 보더라도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빠르게 변해간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샘솟는다. ☺

제주시부녀회 23개 읍면동 부녀회장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활동하다 보니 세대간 융화가 저절로 실천된다. 이들은 플라스틱 없는 섬 만들기, 전통문화 알리기, 사랑의 수의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변을 보살피는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집 앞 작은 꽃, 마을의 변화를 이끈다

「2022 우수마을 공동체」

우수마을 경기 부천 '모두랑 먹적골' 마을공동체

매일 한 송이씩 피운다고 하여 '일일초'라 이름 지어진 꽃이 있다. 이른 아침 햇살을, 청명한 바람을, 그리고 모두의 관심을 양분 삼아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 낸 작은 꽃. 이 작은 꽃에서 시작된 변화는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큰바람을 일으키듯 먹적골 마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시사철 꽃이, 주민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먹적골 마을공동체를 만나왔다.

글. 왕보영 사진. 이만희



(뒷줄 왼쪽부터) 김종길 회원, 이재우 회원, 조상익 회원, 이재민 회원, 김영식 회원
(앞줄 왼쪽부터) 이영희 회원, 유명희 회원, 김명옥 부천시 부녀회장, 김경숙 회원,
오애경 회원, 박순희 심곡3동 부녀회장, 박경분 회원, 김윤선 심곡3동 협의회장

마을을 위해 모인 공동체

마을공동체는 단계에 따라 새싹 마을, 나무 마을, 숲 마을로 나뉜다. 새싹 마을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마을공동체를 의미한다.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의 특성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지난해 실시한 '2022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한 모두랑 먹적골 마을은 새싹 마을이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마을공동체 사이에서 2위를 차지한 것도 놀라운데 이제 막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 낸 결실을 보고 있노라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마을 벽화 갤러리 조성, 마을 꽃동산 만들기, 보행자 안전 통행로 조성, 마을 떡 잔치, 아이들과 소동 창구 만들기, 탄소제로 운동, 인사 나눔 캠페인... 이들이 만들어낸 마을의 변화를 꼽자니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 이 모든 활동이 일부 주민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마을 초등학교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한 것이기에 더 뜻깊다. "우리 마을공동체는 지난 2021년 3월에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앞에 꽃 보이시죠? 저 꽃 덕분에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꽃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사시사철 가게 앞 화단에 꽃을 가꾸는데, 어느 날 사무국장님이 가게 앞만 가꾸지 말고 마을 전체를 가꿔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을이 예뻐지면 저도 좋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마을공동체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김명옥 부천시부녀회장. 그녀와 함께 마을자치회, 통장협의회, 심곡3동새마을회, 상인회, 사회복지보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심곡동 경로당 등 주민 15명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힘을 합쳤다. 마을공동체 이름은 먹적골이라는 마을 이름에 모두 함께 하자라는 뜻으로 모두랑을 붙여 '모두랑 먹적골'이라 이름 지었다. 그 뜻에 꼭 맞게 모두랑 먹적골 마을공동체는 비록 새싹 마을이지만 1년 만에 공동체 인원이 2배 넘게 늘었고, 어느 뿌리 깊은 공동체 못지않은 화합을 자랑한다.

애정과 관심으로 꽃피우는 마을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마을을 가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틈날 때마다 의견을 나누고 고민했다.

"가만 앉아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밤사이 꽃이 잘 있었는지 안부를 살필 겸 마을 한 바퀴를 돌아오. 애정을 갖고 돌다 보니 그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마을의 개선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모두가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몸소 찾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다’, ‘골목 주차장 벽면이 무너질 듯 위험해 보인다’, ‘늘 보는 주민들인데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으면 골목이 환할 것 같다’ 등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언덕 위에 학교가 있는데, 골목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 때 위험하기도 하고, 부서진 주차장 담벼락도 위태로워 보였죠. 그래서 이 주차장 주인 어르신께 양해를 구하고 보수공사를 시작했어요. 5월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7월이 되어서야 완성된 것 같아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시간만 나면 작업을 했어요, 부서진 벽을 새로 쌓고, 미술학원 원장님,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마을의 사계를 그려 넣었어요.”

유명희 회원이 지난 더운 여름을 떠올렸다. 유난히도 이른 더위가

시작된 봄부터 한여름까지 냉수를 나르고 수건으로 붉은 땀방울을 훔쳐 가며 완성된 벽화 갤러리. 벽화를 완성하고 나니 시청에서 보행자 안전 통행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안전 통행로 조성 이후 부족해진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식 먹적골 공영주차장도 조성됐다. 주민들은 안전하게 골목을 오가고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주차장으로 옮겨지니 골목이 더 환해졌다.

“저는 먹적골 마을공동체 사람들을 ‘바람’이라고 불러요.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은 때론 태풍처럼 큰바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들이 시작한 소소한 마을 가꾸기가 지난 세월 해결하지 못한 마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변곡점이 되었어요. 더 나은 모두의 마을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강승원 사무국장의 말처럼 먹적골 마을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함께의 힘

봉사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그것만 갖춰지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50%는 성공한 셈이라고 종종 이야기들 한다. 추진력, 예산, 인력, 시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의 힘일 것이다. 박경분 회원은 여러 활동 중에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에 대해 전했다.

“요즘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마을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 기획한 여러 행사가 있어요. 방과후에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이 고추장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만든 고추장은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하기도 했고요. 인사 나눔 캠페인은 물론 공원 갤러리도 함께했구요. 또 플리마켓을 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안 쓰는 물건을 팔고 번 돈을 저희에게 줬어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일에 써달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에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함께 공간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고, 그 만남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움트게 한다. 그래서일까. 먹적골 마을 공동체는 올해 목표로 행사할 때만 잠깐 모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원 도서관과 같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인터뷰를 마치고마자 어디론가 바빠 움직이는 이들. 어느새 아이들과

함께 골목에 주민들이 나란히 늘어섰다. 손인사 피켓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인사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다. 캠페인을 처음 진행했을 당시 이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이들도, 어색해하던 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길을 지난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인사하는 사이 마을은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지고 행복으로 채워진다. ☺

- 1 인사 나눔 캠페인
- 2 벽화 앞에 조성한 화단
- 3 주민들이 마을 화단의 꽃을 가꾸고 있다.
- 4 아이들과 함께 만든 작품은 공원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청춘의 푸르름으로 새마을을 밝히다

신한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

청춘의 푸르름으로 새마을운동의 분위기를 더욱 청량하게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있다. 바로 신한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다. 새마을운동이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지우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신한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 그들이 꿈꾸는 새마을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신유빈 회장과 의 이야기를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장희주 사진. 이민희



(윗줄 왼쪽) 이수은 회원, 신유빈 회장
(아랫줄 왼쪽) 장등주 회원, 김백송 회원, 최준호 회원

Q·신한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는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년 6월 개설된 이후로 회원 63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다양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놀아준다거나, 대학생들의 심리를 보살펴 주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중 하나죠. 특히 신한대학교 새마을동아리는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어 더욱 탄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달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계획 하에 새마을동아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Q·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없었다면 동아리에 가입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기도 하고, 원래 봉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전공과 함께 봉사를 접목하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알게 되었는데, 꽤 큰 규모의 동아리더라고요. 사실 '새마을운동' 하면 MZ세대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어릴 적에나 활동하던 일일 것 같았죠. 그런데 과거의 새마을운동에 MZ의 생각을 접목하니 오히려 다양하고 활기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Q·이야기로만 들던 새마을운동을 직접 경험하게 된 셈인데요. 느낌이 어떤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들과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이 무척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취합해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새마을운동은 틀에 박힌 운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활동할 때마다 색다른 경험을 누리고 있답니다. 특히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어요.

Q·동아리 회원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라서 뿌듯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직접 기획해 실현했던 '스마트폰을 잇(IT)다'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더라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계획한 일이죠. 화요일과 수요일에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 설명에서부터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안내 드렸어요. 카카오톡 및 배달앱 사용법, 버스·택시·카드 결제 방법 등 스마트폰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드렸어요. 교육받고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저희도 덩달아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스마트폰 교육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요.

Q·이번 활동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어성초 같은 약초 가루를 넣어 만들어 보았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누 베이스를 직접 잘라주시기도 하고 녹이는 과정에도 참여해 주셨어요.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이 비누를 사용하실 때마다 저희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세대에게 새마을운동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MZ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동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 '환경정화'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정화를 넘어서 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원인을 찾거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한 활동이 자리 잡힌다면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그다음 세대에게도 새마을운동이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2023년 활동도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작년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세대를



“올해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하려고 해요. 다양한 의견을 모아 멋진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우르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해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기획해 보고자 해요. 동아리 회원들과 더욱 열심히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끝으로 회장으로서 작은 바람이 있는데요. 지난해 '2022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에서 신한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가 장려상을 받았어요. 동아리가 개설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려상을 받은 건 무척 의미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 동아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올해 진행될 평가대회에서는 우수상까지 노력하고자 해요. 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동아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멋진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1 어르신들과 함께 한 친환경 비누 만들기

2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신한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연결하는 새마을협력관

2023 새마을협력관 교육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지구촌 새마을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데는 현지에 거주·체류하면서 해외 새마을사업 추진을 돕는 '새마을협력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마을협력관은 새마을운동이 현지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가장 큰 '협력자'라고 할 수 있다.

글. 장희주



새마을운동의 중심, 새마을협력관

새마을협력관은 새마을운동이 현지 상황에 맞게 전개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한국과 이를 본보기 삼아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각국을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들은 현지에서 중심이 되어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새마을협력관은 총 13개국에서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과 그 추진방안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위해 '2023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마을협력관 초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10개국 14명이 참석하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워갔다. 이번에 참가한 국가로는 라오스,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피지, 동티모르,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부룬디, 잠비아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23년 지구촌새마을운동 중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새마을협력관의 새마을운동 이해 증진 및 현지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선진 농업기술과 유통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현장 교육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새마을협력관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배우고, 협력관의 역할에 대해 의미를 나눴다. 또한 사업 집행 정산 및 관리, 새마을현장교육 진행 매뉴얼 등의 이론 교육과 각국의 새마을운동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내일을 모색하게 하는 시간

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배우는 일은 남다른 경험일 터. 교육에 참석한 협력관들은 교육으로 새마을운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캄보디아의 찐 보오톤 새마을협력관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다. "새마을운동의 지식과 정신을 총결산하는 이번 교육에 초대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에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새마을정신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다면, 더 넓게는 캄보디아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일원으로, 새마을정신을

캄보디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비아의 무손다 치산가 새마을협력관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교과서 삼아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협력관. 새마을운동의 협력자로서, 각국으로 돌아가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를 응원해 본다. ♡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

‘환경 보호’라고 하면 괜스레 거창해 보이고 어렵게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환경 보호는 거창한 실천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도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작은 생활 속 습관 하나가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

글: 편집실



Earth

첫 번째, 부엌에서 실천하기

쌀을 씻은 뒤 생겨나는 물. 대체로 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이제 버리지 말고 여기저기 활용해 보자. 쌀뜨물로 세수해도 좋고, 샴푸 대신 사용해도 좋다. 얼굴과 머릿결이 보드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피부나 머리카락 대신 화분에 양보해도 좋다. 쌀뜨물에 함유된 영양분이 화초를 잘 자라게 해준다. 요리의 깊은 맛을 내는 데도 쌀뜨물은 아주 제격이다. 쌀뜨물에는 단백질·미네랄·비타민과 같은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고,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하는 데도 좋다. 설거지할 때 뚝배기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다. 특히 뚝배기는 흠으로 구워 빛는 그 특성상 기공이 잘 생기는데, 이 공간으로 세제가 스며들 수 있다. 쌀뜨물로 씻어내면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쌀뜨물의 전분이 뚝배기에 기공이 생기는 것을 막아 내구성도 높여주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욕실에서 실천하기

물을 절약하고 오염을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우리는 머리를 감을 때 나도 모르게 샴푸를 몇 번씩 펌핑하게 되는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머리카락의 건강과 환경까지 보호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이 있다. 머리를 감을 때 작은 습관 하나만 만들어두면 된다. 샴푸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아둔다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 영킨 머리를 빗으로 잘 정리해준다. 머리가 엉켜 있으면 샴푸 거품이 잘 나지 않아 샴푸를 더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샴푸를 펌핑할 때에는 500원 짜리 동전만큼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다. 샤워 시간을 5분만 단축해도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샤워를 15분 동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약 180L에 달한다. 그런데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어도 물 60L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6.6kg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낭비되는 물도 만만치 않다. 양치할 때는 양치컵을 사용하고 세수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가둔 채로 하도록 하자.

세 번째, 세탁실에서 실천하기

부엌과 욕실에 이어 가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다. 바로 세탁실이다. 실제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 사용 방법만 제대로 숙지해도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세탁물은 세탁기 용량의 절반 정도로만 사용한다. 예컨대 10kg 세탁기에는 5~6kg, 6kg 세탁기에는 3~4kg의 물을 사용하는 식이다.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행굼을 한 번 할 때마다 50L의 물이 소요되는데, 행굼은 한 번이어도 충분하다. 이 외에도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여러 방법도 다수 있다. 세탁을 할 때 '세탁망'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섬유를 걸러내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섬유유연제는 수질오염의 1등 공신이다. 되도록 필요할 때만 사용하거나 유연제 대신 식초를 소량 넣는 것도 살균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쓰레기는 올바르게 배출하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쓰레기를 잘 버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은 외부에 붙어 있는 라벨과 포장 띠를 제거한 후 분리수거해 배출한다. 특히 내용물 없이 깨끗해야 하고, 가능하면 압착해 부피를 줄여 배출한다. 종이와 우유 팩은 엄연히 구분해 버려야 한다. 우유 팩·주스 팩은 일반 종이와 다르게 특별한 재활용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이와 종이팩이 섞이지 않게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유리병은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사용은 유리병을 가공하지 않고 반복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은 가공해 유리타일이나 유리병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불이 불가능한 재활용 유리병은 유리를 깨트려서 유리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재사용 유리병은 다시 그대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재사용 유리병에는 맥주병·소주병·청량음료병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병에는 병뚜껑이나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붙어 있다. 재활용 유리병에는 유리 분리배출표시가 되어 있고, 무색·녹색·갈색 세 가지 색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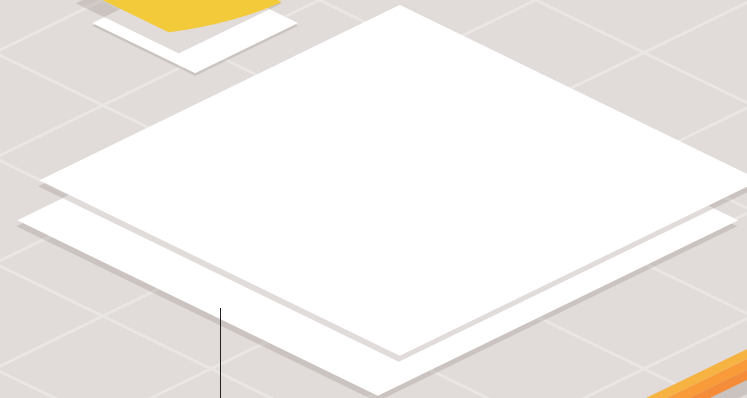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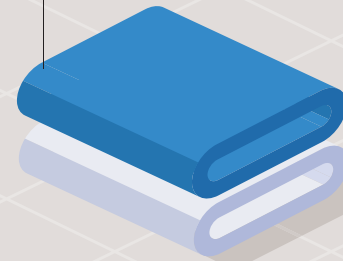
집안 곳곳에서 실천하는 작은 생활 속 습관 하나가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



슬기로운 탄소중립 사무실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 보세요

종이 타월 한 장당 탄소 0.0017kg을 발생시켜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연간 1인당 온실가스를 26kg 감축할 수 있어요.



식물을 가꿔주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대신 식물을 키운다면 전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록의 식물을 보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양면인쇄와 흑백인쇄를 해보세요

연평균 480만 장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쇄비용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종이 생산에 필요로 한 자원도 아낄 수 있어요. 이면지나 재생지를 활용하면 나무 40%, 물과 에너지 15~20%를 절약할 수 있어요.



중앙회 소식



1. 두원공대 · 한경국립대와 업무협약(5.2)

중앙회와 두원공과대학교(총장 임해규)는 지난 5월 2일 국가와 지역발전,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새마을동아리 운영·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 활성화로 사회 공헌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유익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6일에는 국가와 지역발전,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총장 이원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2023 라오스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4.3.~4.11.)

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라오스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한 교육기간 동안 라오스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추진전략을 배우고, 분인토와의 액션플랜 수립,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활동 시간을 가졌다. 또한, 라오스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현지화 방안을 모색했다.



3.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렵(SAELUV)' 3기 발대식 (4.20.)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렵(SAELUV)' 3기 발대식을 지난 4월 20일 개최했다. '새렵(SAELUV)'은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운동의 주요 추진방향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21년 출범했다. 영상크리에이터로 구성된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렵 3기는 발대식 이후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현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4. 2023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4.25~5.4.)

중앙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캄보디아 맞춤형 새마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총 4개의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월 25일 열린 입교식에는 캄보디아 공무원과 시범마을 새마을지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캄보디아 초청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해 새마을운동 라오스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시·도 소식

서울 |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위한 구호 물품 전달

서울특별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5월 3일 강원도부녀회에 강원도 강릉 산불 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구호 물품(약 5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구호 물품은 서울시 회원들이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십시일반 모은 수건과 이불, 담요, 생필품 등으로 구성했다.



부산 | 부산시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식 개최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재종모)가 지난 4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부산시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이남윤)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구 |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책의 날

대구광역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4월 24일 새마을지도자와 내빈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7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로 합쳐지는 군위군새마을회장단을 초청해 환영의 시간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인천 |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김익식)는 지난 4월 21일 중구 허버파크호텔에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선언식'에서 김익식 회장은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춘 인천이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며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광주 |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청년새마을연대 발대식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4월 26일 광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광주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마을운동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국청년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새마을회(회장 양용모)는 지난 4월 28일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선 30년 기념장을 수상한 부녀회원 3명을 포함, 새마을지도자 30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또 청년세대의 활발한 새마을운동 참여를 통해 미래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청년회의소 대전지구(회장 한정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도 소식

2023 05 + 06 제 8 호

울산 | 대학새마을봉사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

울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4월 14일 새마을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울산지역 대학새마을봉사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대식 울산광역시새마을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젊은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대학동아리 간 정보교류를 통해 “좋은 이웃 만들기” 공동체 활동 활성화의 저변확대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아름동새마을 창단식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4월 24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동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김상영 초대협의회장과 고현숙 초대부녀회장에게 인준서를 수여하고, 아름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의 정식 출범을 알렸다.



경기 | 기후 위기 극복 탄소중립 나무 심기 사업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는 지난 3월 29일 조립사업 예정지인 양평읍 창대리 산62번지 일원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개최했다. 이날 전진선 군수와 공무원, 객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김성은 양평군지회장과 양평군 산림조합 직원 등 300여 명은 약 1헥타르 면적 부지에 화백과 자작나무 3천 그루를 심었다.



강원 | 강원도 유관단체 민관협력 간담회

강원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지난 4월 14일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릉 산불 피해 신속 복구 및 지원을 위한 '강원도 유관단체 민관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1일 강릉 산불의 피해 상황과 강원도의 복구 및 대응 상황을 도내 민간단체들에게 설명하고,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북 | 시군새마을회장 회의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이화련)는 지난 5월 4일 증평군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시군새마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당면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기타 토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 |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지구촌협력사업 현지조사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웅)는 지난 4월 1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발전시키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마을운동의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한편, 도새마을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필리핀 파나마섬 이클란주 칼리보시 일원에서 '국제협력사업 현지조사 및 시·군직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 |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지난 4월 25일 알펜시아 컨벤션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도 및 시군 새마을회장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라북도새마을회는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전북형 해외협력사업,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한 대학 새마을동아리, 청년새마을연대 구성 등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 | 전남 청년연합회 출범식 및 새마을의 날 기념식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지난 4월 25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전남 청년연합회 출범식 및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어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청년새마을연대와 새마을가족이 함께하여 지역 새마을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북 |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선포식

경상북도협의회(회장 조성현)는 지난 4월 19일 새마을회관에서 '2023 생명운동 실천! 흙 살리기 운동,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선포식'을 개최했다. 23개 시군은 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거한 120포대의 농약병을 트럭에 싣고 차례로 행사장에 입장하며 그간의 활동 성과를 보여주었다.



경남 |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는 지난 4월 25일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하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완수 도지사, 김진부 도의장, 안화영 경상남도새마을회장, 시·군 지회 회장단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 기념사, 축하, 새마을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 |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및 나무 심기 운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안창준)는 지난 4월 11일 우도면 우도봉에서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및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 나무 심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자 마련했다.



이북5도 | 정전협정 70주년 망향제 개최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울릉도, 독도 일원에서 '내 고향 재건을 위한 통일 새마을운동 준비'를 주제로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망향제를 개최했다. 이번 망향제는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7월 27일)을 맞아 최동쪽에서 이산의 아픔을 나누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먼저 타계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개최했다.



현장은 지금

공동체 문화 조성

- 서울 중구 다산동협의회(회장 이병도)는 지난 4월 7일 관내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사랑의 점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직장·공장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홍성도)는 지난 4월 14일 관내 청소년 60명과 함께 철원 DMZ 등을 견학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추진했다.
- 서울 용산구 용문동부녀회(회장 편미화)는 지난 5월 10일 주민센터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50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서울 양천구부녀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5월 3일 신정3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결혼이주여성 10여 명과 함께 카네이션 화분과 격려품 꾸러미를 만들어 저소득 이웃 200가구에 전달했다.
- 문고 서울 성북구지부(회장 서호정)는 지난 4월 4일 관내 북카페 9개소를 순회하며 도서를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 서울 마포구지회(회장 박정환)는 지난 4월 11일 관내 저소득 초등학생 150가구에 과자 세트와 마스크를 전달했다. 협의회(회장 김종덕)는 지난 4월 13일 희우정로 및 독막로 일대에 쌈지 화단 꽃 심기 '언제나 마을이 이쁘다' 사업을 진행했다.



- 서울 도봉구지회(회장 황이선)는 지난 4월 24일 소외계층·홀몸 어르신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구정에 전달했다.
-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회장 유기선)는 지난 4월 13일 구청에서 방역봉사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교동부녀회(회장 이영우)는 지난 4월 19일 이웃과 나를 살리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을 받았다.
- 인천 연수구 선학동부녀회(회장 최미란)는 지난 4월 12일 관내 소외계층 100명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인천 남동구 구월2동부녀회(회장 권민정)는 지난 4월 12일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 40여 명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했다. 논현교 잔동부녀회(회장 이용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은 모금액(현금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4월 9일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 인천 동구 송현1·2동협의회(회장 강민규)는 지난 4월 10일 관내 경로당 4곳을 방문해 에어컨과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의 물품을 지원했다.



- 인천 강화군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지난 4월 21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시 최우수지회상을 수상했다.
- 강원 동해시 북삼동부녀회(회장 김선자)는 지난 4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무 110kg으로 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 문고 강원 원주시 일산동분회(회장 권기향)는 지난 4월 16일 우보삼상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 단구동협의회(회장 김남신)는 지난 4월 21일 주민센터에서 생명살리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 강원 홍천군새마을회(회장 이강권)는 지난 4월 14일 '1318 Happy Zone 초록세상' 지역아동센터 모범학생 4명에게 장학금 총 40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인천·강원

- 강원 횡성군부녀회(회장 원선자)는 지난 4월 4일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머느리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실천

- 서울 중구지회(회장 김명곤)는 지난 4월 5일 청구동 문화마당에서 소나무 500그루를 심었다.
- 서울 성북구새마을회(회장 천복성)는 지난 4월 12일 성북천에서 '걷고 싶은 성북천' 하천 청소와 주변 정화활동 및 EM(유용미생물균)흙공 던지기를 실시했다.



- 서울 강북구새마을회(회장 차충제)는 지난 3월 31일 북한산둘레길을 돌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줍깅을 실시했다. 송천동부녀회(회장 오민영)는 지난 4월 3일 관내 자투리 공간에 소나무 20그루와 봄꽃 60송이를 심었다.
- 서울 도봉구지회(회장 황이선)는 지난 4월 17일 북서울중학교 인근 산 일원에서 '새마을줍깅데이' 사업을 펼쳤다.
- 서울 서대문구지회(회장 전영희)는 지난 4월 20일 새마을의 날을 맞아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사천교까지 하천정화활동과 줍깅 사업을 실시했다.
- 서울 양천구부녀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4월 14일 안양천 및 해마루 축구장 일대에서 행복한 양천 만들기를 위한 줍깅 캠페인을 펼쳤다.



-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회장 유기선)는 지난 5월 1일 주민자치 어울마당 행사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직접 제작한 재생비누 400개를 주민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관교동부녀회(회장 이영우)는 지난 4월 19일 관내에서 탄소중립 실천 새마을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인천 남동구지회(회장 신대현)는 지난 3월 31일 논현포대그린공원에서 왕벚나무 등 3종 200그루를 심었다. 간석3동협의회(회장 김봉호)는 지난 4월 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펼쳐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616kg, 고철 50kg을 수거·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23만 원을 마련했다.
- 강원 원주시 단구동협의회(회장 김남신)과 부녀회(회장 우명옥)는 지난 4월 21일 여성가족공원 둘레길에 삼색버드나무 20그루를 심었다.
- 강원 태백시 황지동협의회(회장 김진덕)와 부녀회(회장 김미선)는 지난 4월 22일 황부자 머느리공원에서 철쭉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
-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이영철)는 지난 4월 3일 시설관리공단을 찾아 생활 속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분리소각 및 매립 현장 체험활동을 했다. 조양동협의회(회장 최광용)과 부녀회(회장 정순녀)는 지난 4월 16일 청대산 소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120kg을 수거하는 수질환경사업을 실시했다.
- 강원 삼척시 남양동부녀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3월 27일 충혼탑에서 주변 정리 및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운동을 진행했다.



- 강원 횡성군 청일면협의회(회장 박익진)와 부녀회(회장 박희순)는 지난 4월 3일 관내 하천변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해 쓰레기 20kg을 수거했다. 우천면부녀회(회장 홍정숙)는 지난 3월 27일 관내 폐비닐수거장에서 수거한 폐비닐 100L 50개 분량의 분리 작업과 청소를 했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공동체문화 조성

- 부산 서구 초장동부녀회(회장 이월순)는 지난 4월 27일 관내 일원에서 계절김치, 반찬 등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 부산 영도구 봉래1동협의회(회장 김준영)와 부녀회(회장 변순애)는 지난 4월 24일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사업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 36명을 모시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았다.
- 부산 동래구 온천2동부녀회(회장 최경애)는 지난 4월 27일 관내 일원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7가구에 전달했다.
- 대구 중구새마을회(회장 권혁대)는 지난 3월 25일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순 고르기 작업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 대구 동구부녀회(회장 이재경)는 지난 4월 25일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서 어르신 식사를 위한 배식 활동을 실시했다.
- 대구 서구새마을회(회장 김동근)는 지난 5월 2일 생명을 살리는 헌혈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북북혈액(원장 이건문)에 헌혈증서 135장을 기부했다.
- 울산 남구 신정5동협의회(회장 박무성)와 부녀회(회장 김영희), 문고(회장 김신우)는 지난 4월 13일 관내 취약계층 10가구를 방문해 이불을 수거하고, 대한적십자사 세탁방에서 세탁 · 건조 후 직접 가져다드리는 이불빨래 사업을 펼쳤다.



- 직장 · 공장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황원호)는 지난 4월 26일 중앙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채움 냉장고'에 식료품을 기부했다.
- 울산 동구 남목1동협의회(회장 윤재필)와 부녀회(회장 명호자)는 지난 4월 27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직접 도배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정택준)는 지난 4월 1일 사랑의 경작지 사업으로 덕양구 대자동 휴경지에 감자와 옥수수 모종을 심었다. 수확 후 판매한 수익금은 관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경기 성남시새마을회(회장 임원득)는 지난 4월 27일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영월군새마을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우수 농산물 홍보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 경기 부천시새마을회(회장 조우형)는 지난 4월 25일 새마을회관에서 이웃사랑 꾸러미사업을 전개하고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어려운 이웃 300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수원시부녀회(회장 김옥자)는 지난 4월 20일 영동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고기와 유부초밥 등을 만들어 관내 9개소 공동생활시설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협의회(회장 이태섭)와 부녀회(회장 고미숙)는 지난 4월 27일 열무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경로당 9개소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 경기 화성시 동탄1동부녀회(회장 김순재), 4동부녀회(회장 최순희), 5동부녀회(회장 차정심)은 지난 4월 25일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전개에 관내 130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협의회(회장 박명선)와 부녀회(회장 지춘자)는 지난 4월 13일 삼봉2리 마을회관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평택시 원평동부녀회(회장 나원순)는 지난 4월 11일 행정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 복지센터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협의회(회장 강대석)와 부녀회(회장 김경순)는 지난 4월 4일 '사랑의 고추장 나눔'사업으로 고추장을 직접 담가 관내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파주시 탄현면협의회(회장 황규희)와 부녀회(회장 오정자)는 지난 4월 2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장단콩엘마루 주차장에서 관내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음식과 함께 장구, 민요, 부채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 제주 제주시 구좌읍부녀회(회장 김희정)는 지난 4월 26일 거동이 불편한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도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탄소중립 실천

- 부산 중구새마을회(회장 이형목)는 지난 4월 17일 영주1동 봉래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과 쓰레기 등에 대해 설명하는 청소년 환경체험교실을 열고, 머그잔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 부산 동구 초량6동협의회(회장 윤영석)와 부녀회(회장 유영자)는 지난 4월 25일 부산고등학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단 정비를 실시했다.
- 부산 영도구 영선2동부녀회(회장 김은경)는 지난 4월 26일 행정

- 복지센터 2층 문화의 방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해 포맷자루와 예코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했다.
-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부녀회(회장 조연옥)는 지난 4월 20일 당감천 일원에서 환경정화를 위해 EM(유용미생물균)용액을 하수구에 뿌리고,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도 펼쳤다.
- 부산 남구 우암동협의회(회장 조재식)와 부녀회(회장 장순애)는 지난 4월 17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리 작업을 펼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정비사업을 전개했다.
- 부산 북구 구포3동협의회(회장 김만수)는 지난 4월 23일 관내 휴경지에 고추 모종을 심고, 일대 주변의 환경정비도 실시했다.
- 대구 동구 신암1동협의회(회장 권후호)와 부녀회(회장 윤진숙)는 지난 4월 23일 팔공산 수태굴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며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펼치고, 새마을 줍깅도 실시했다.



- 대구 서구 평리6동협의회(회장 박태경)와 부녀회(회장 채영희)는 지난 4월 20일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 관내 수거함에 모인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 · 건조 작업을 진행했다.
- 울산 중구 학성동협의회(회장 이순길)와 부녀회(회장 손정희), 문고(회장 우필자)는 지난 5월 1일 태화강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새마을 줍깅을 전개했다.
- 경기 부천시 신중동 중4협의회(회장 송원기)는 지난 4월 15일과 27일 부광초등학교 옆 산책로에 넝쿨 장미를 심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전개했다.
- 경기 화성시새마을회(회장 조종애)는 지난 4월 21일 새마을의 날을 맞아 새마을회관에서 팔탄면 구장사거리까지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사랑의 헌혈운동도 전개했다.
- 경기 안양시새마을회(회장 김의중)는 지난 4월 13일 관내 일원에서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하고, 14일에는 박석교에서 새마을방역발대식을 개최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공동체 문화 조성

- 광주 서구 광천동부녀회(회장 이정남)는 지난 4월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을 맞은 홀몸 어르신 3명을 초청해 생신상 차려드리기 활동을 펼쳤다.



- 대전 중구 태평2동부녀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4월 19~20일 닭백숙 · 도토리묵 · 열무김치 · 파래 김부침 4색 반찬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
- 대전 동구 가양2동부녀회(회장 구점순)는 지난 4월 24부터 26일까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방문 배달까지 돕는 윈스톱 빨래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대전 대덕구 덕암동협의회(회장 오태진)와 부녀회(회장 한명자)는 지난 4월 23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홀몸 어르신 300여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 직장 · 공장 충북 제천시협의회(회장 박경배)는 지난 4월 13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미담이문을 교체하고 단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집수리 활동을 전개했다.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협의회(회장 장춘석)는 지난 4월 2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 새마을 자율방역 발대식'을 개최했다. 흥덕구협의회(회장 남상대)는 지난 4월 28일 구청을 방문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충남 공주시 탄천면협의회(회장 김근호)와 부녀회(회장 전순희)는 지난 4월 29일 탄천초 · 중학교에서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 대상으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 충남 계룡시부녀회(회장 이장미)는 매주 2 · 4주 수요일 관내 10~15가정의 산모들에게 미역국을 끓여 전달하고 있다.
- 충남 태안군 소원면협의회(회장 이성철)와 부녀회(회장 김정민)는 지난 4월 29일 만리포중학교에서 관내 어르신 1,000여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 충남 보령시 오천면부녀회(회장 이연순)는 지난 4월 28일 열무김치, 불고기 등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심정섭)는 지난 4월 17일 구룡포성당 일원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등 400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했다. 효곡동부녀회(회장 천혜녕)는 지난 4월 28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가득 삼계탕 나눔'을 실시했다.
- 경북 경주시부녀회(회장 정명숙)는 지난 4월 21일 새마을회관에서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구호 물품(1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 경북 김천시 구성면협의회(회장 김병기)와 부녀회(회장 서홍년)는 지난 4월 26일 송죽리 소재 휴경지에서 고구마 모종 심기 사업을 전개했다.
- 문고 경북 구미시지부(회장 김택동)는 지난 4월 27일 지역사회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43번째 새마을작은도서관(산동을 풀하우스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 문고 경북 경산시지부(회장 최상숙)는 지난 4월 18일 관내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 경북 영양군 입암면협의회(회장 우재운)와 부녀회(회장 장명숙)는 지난 4월 13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위한 새마을 대청소 활동을 실시했다.
- 경북 울릉군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4월 26~27일 종합복지회관에서 사랑의 된장 · 간장 나눔 사업을 펼쳐 읍면별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전달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탄소중립 실천

- 대전 중구새마을회(회장 진춘식)는 지난 4월 19일 중촌동 효심정 앞 공터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영산홍 500그루를 심고 대전전변의 쓰레기를 줍는 줍깅데이 활동도 펼쳤다.



- 광주 동구부녀회(회장 박미숙)는 지난 4월 21일 구청 광장에서 각 동에서 수거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이불 등의 재활용품을 분류해 매각하는 '재활용품 모으기' 사업을 전개했다. 충장동부녀회(회장 이금숙)는 지난 4월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EM용액(유용미생물군)을 무료 배포했다.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부녀회(회장 조영옥)는 지난 4월 26일 충북대 중문 일원에서 무단 투기된 불법쓰레기, 거리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비롯해 각종 전단지, 오물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 충북 충주시 용산동협의회(회장 신광하)와 부녀회(회장 임유순)는 지난 5월 1일 행정복지센터 옥상에서 여름꽃묘 4천 송이 포트 작업을 실시했다.



- 충북 괴산군 청천면협의회(회장 방철민)와 부녀회(회장 정영자)는 지난 4월 13일 금평리 화양로에 2,000여 송이의 꽃묘를

- 심으며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 충남 천안시 봉명동부녀회(회장 김정례)는 지난 4월 26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과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다.
-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길근섭)는 지난 4월 13일 복수면 곡남3리 유등천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영산홍 2,000그루를 심었다.
- 경북 상주시 동문동협의회(회장 장길수)와 부녀회(회장 정정옥)는 지난 4월 27일 병성천 일대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EM(유용미생물군)흙공 던지기 활동을 실시했다.
- 경북 영천시 금호읍협의회(회장 정철훈)와 부녀회(회장 허정출)는 지난 4월 21일 신월리, 대곡리 등 마을의 주요 입구 도로변에 메리골드, 베고니아, 페추리아 등 봄꽃 4,000송이를 심었다.



- 경북 영덕군새마을회(회장 박일동)는 지난 4월 11일 군민운동장에서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지대회를 개최하고 고철,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신발 등 폐자원 13여 톤을 수집했다.
- 경북 봉화군 춘양면부녀회(회장 최선옥)는 지난 4월 25일 운곡천 일원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오물, 플라스틱 등을 수거했다.

지구촌

- 경북 군위군새마을회(회장 박택관)는 협의회(회장 박영록)와 부녀회(회장 이금조) 남너지도자 26명과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최남단 까마우시에서 '군위군새마을회 다문화가정 후원의 집' 현판식을 개최하고 주민에게 후원금과 식량 구급용품, 장바구니, 부채 등을 전달했다.



전북 · 전남 · 경남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익산시새마을회(회장 장오준)는 지난 5월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 어르신 및 요양시설 어르신 300명에게 '희망 드림(Dream) 반려 화분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 전북 정읍시새마을회(회장 김학구)와 부녀회(회장 김경란)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23개 읍·면·동 홀몸 어르신 690세대에 밀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영양식 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
- 전북 정읍시 초산동부녀회(회장 유현)는 지난 4월 18일 새마을회관에서 밀반찬 4종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30가정에 전달했다.



- 전북 남원시 운봉읍부녀회(회장 금선여)는 지난 4월 29일 제27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음료 제공 및 청소활동을 전개했다.
- 전북 김제시 신평동부녀회(회장 이순님)는 지난 4월 11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성 가득 음식나누기' 사업을 전개하고 관내 취약계층 40세대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 전북 진안군지회(회장 이상봉)는 지난 3월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울 강동구새마을회(회장 성홍수)와 '자매결연 교류협약식'을 가졌다.
- 전남 목포시 하당동부녀회(회장 김수정)는 지난 4월 25일 이로파출소와 합동으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를 위한 야간 방법순찰을 펼쳤다.
- 전남 순천시새마을회(회장 김동철)는 지난 5월 2일 남교오거리에서 2023순천만국제제철원 박람회 손님맞이 '일류시민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전남 나주시부녀회(회장 김순례)는 지난 4월 27일 '사랑의 밀반찬' 사업을 추진해 관내 홀몸 어르신 115가구에 전달했다.



- 전남 곡성군 곡성읍협의회(회장 황자연)와 삼기면협의회(회장 조배현)는 지난 4월 4일과 26일 곡성읍 도림사 입구 및 삼기면에 설치된 새마을기를 교체·계양했다.
- 전남 고흥군부녀회(회장 김성숙)는 지난 4월 28일 '2023년 고흥군장애인어울림한마당' 축제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참석자 800여 명에게 점심도시락 배달 및 음료 제공 활동을 실시했다.
- 전남 완도군 보길면부녀회(회장 박미숙)는 지난 4월 27일 관내 홀몸 어르신 등 60가구에 손수 만든 밀반찬을 전달했다. 완도읍부녀회(회장 김종미)는 지난 4월 27일 위생 취약 계층 세대를 찾아 이불빨래 및 이·미용 활동을 펼쳤다.
- 경남 통영시새마을회(회장 임명륜)는 지난 5월 2일 '통영 띠라 청년새마을연대(회장 황현숙)'와 함께 죽림주공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우쿨렐레 공연을 했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중앙동협의회(회장 손순모)는 지난 5월 1일 여름철 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방역환경 취약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 집중 방역활동을 위한 자율방역반 발대식을 가졌다.
- 경남 사천시부녀회(회장 이향선)는 지난 5월 12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킥 과일(70만 원 상당) 300개를 준비해 전달했다.



- 문고 경남 의령군지부(회장 김쌍철)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의령 홍의장군축제를 맞아 가족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도서 500여 권을 비치하고, 의병홍의서당(새마을문고

전북 · 전남 · 경남

이동도서관)을 운영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전북 완주군새마을회(회장 구생회)는 지난 4월 3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완주군산림조합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새마을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그린테랑트 평화의 숲 협력캠페인'을 개최하고, 중앙회에서 후원한 소나무 900그루를 심었다.



- 전북 부안군 하서면협의회(회장 강승구)와 부녀회(회장 고평심)는 지난 5월 17일 해양쓰레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백산면부녀회(회장 정관심)은 같은 날 관내 도로변을 정리하고 꽃심기 활동을 했다.
- 전북 완주군 경천면부녀회(회장 박분이)는 지난 5월 8일 읍사무소와 체육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광양시 광양읍협의회(회장 강성용)와 부녀회(회장 차도순)는 지난 4월 22일 광양읍 월파마을 인근 도로변에서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광양읍 가꾸기'를 위한 클린데이 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무안군 무안읍협의회(회장 백계복)는 지난 4월 25일 평용나들목 도로변에 버려진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 관내

-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무안읍부녀회(회장 양복순)는 지난 4월 21일 녹색한우타운 건너편 철쭉동산의 잡초를 제거하는 풀매기 작업을 실시했다.
- 전남 보성군 북내면협의회(회장 소홍영)와 부녀회(회장 이두례)는 지난 4월 20일 관내 일원에서 총 5톤의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펼쳤다.



- 경남 진주시 대평면부녀회(회장 정갑순)는 지난 4월 28일 '2023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내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성북동협의회(회장 강옥춘)와 부녀회(회장 김현숙)는 지난 5월 2일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관내 환경정비활동 및 '새마을 줌깅데이' 캠페인 진행했다.
- 경남 밀양시새마을회(회장 김호근)는 지난 4월 19일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청도면협의회(회장 박성진)와 부녀회(회장 목영이)는 지난 4월 18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도면을 만들기 위해 조천천 들레길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줍깅데이' 활동을 펼쳤다.
- 경남 양산시 하북면협의회(회장 정태근)와 부녀회(회장 황경숙)는 지난 4월 28일 회원 및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30여 명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신평시가지를 중심으로 국토대청소를 실시했다.

역량강화

- 전남 구례군새마을회(회장 정연숙)는 지난 4월 17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구례군 청년새마을연대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 문고 경남 김해시 대동면분회(회장 전심미)는 지난 4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및 자원순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3+4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황옥주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김미경 대표의 열정적인 삶을 보니, 저도 그러한 삶을 도전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공부'. 다양한 세계와의 '연결'. 중요한 것은 나이라는 한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민우

197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많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사회개발에 기여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의 회복과 인류 공동의 번영을 이뤄내는 데에 다시금 새마을정신이 잘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무진

대학새마을동아리 코너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전개하는 새마을운동과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 코너라 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학생들이 이끌어갈 새마을운동 활동이 기대됩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SNS 구독하고 활동소식을 빠르게 만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이웃추가

